

# 나눔터

## 보관용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날: 1994년 12월 28일/ 계간발행/ 주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 137-600)/ 전화: 02)576-7127~8



「열림터」 개설회에서  
—「열림터」 운영위원들 소개

### 차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	2	성교육(박미라) .....	10
이렇게 생각한다(정경자, 이호중) .....	3	내가 생각하는 성 .....	11
여기는 상담실 .....	4	나눔터 애깃글(한림화) .....	12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 .....	5	성문화 읽기(류숙렬) .....	13
더 좋은 상담을 위하여 .....	6	여성계는 지금 .....	14
심리적 치유과정에서의 「글쓰기」의 활용 .....		인사드립니다(윤장순).....	15
특집 : 열림터를 열며 .....	8		



## 『열림터』 개설키

본 상담소의 숙원사업이던 『열림터』가 10월 14일 문을 열었다. 열림터는 지속적인 성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올바르게 건강한 극복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제 1 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

본 상담소 최영애소장과 임순영총무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후지사와시 가나가와 여성센터에서 열린 제 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참가하였다. 내년 8월 말 북경에서 열릴 제4차 세계여성대회 NGO(비정부단체)포럼에 동아시아권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고, 마카오, 대만, 홍콩 등 7개국에서 참석하였다. 여성과 개발, 여성의 정치력 향상, 여성인권, 여성과 문화, 전쟁과 평화 등 5개 분과로 나뉜 회의에서 각국 실태보고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 최영애 소장, 「에노시마 국제회의」에서 주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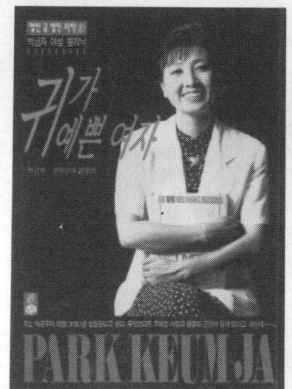
최영애 소장은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앞서 10월 20일 에노시마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최영애 소장은 「한국사회에서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 회의에서 라오는 「변화하는 라오의 농촌여성」, 일본은 「가나가와 여성센터의 쉼터 이용자 실태」, 「여성폭력의 원인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에노시마 국제회의」에서 주제 발표하는 최영애소장

## 박금자 선생님, 열림터 운영기금 주시다

본 상담소 이사이자 의료자문위원인 박금자(박금자여성클리닉 원장)선생님이 여성의학 지침서인 『귀가 예쁜 여자』(도서출판 민 펴냄)의 「출판 기념회」와 「박금자 산부인과 개원 10주년식」을 11월 19일 63빌딩 국제 회의장에서 열고 그 자리에서 모금된 후원금과 출판수익금 전액(1천1백 여만원)을 열림터 운영기금으로 기부했다. 본 상담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산부인과적 자문을 성심껏 해주시고 특히 위기 센터 개설시에도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신 박선생님의 출판수익금 전액 기부는 열림터 운영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상담소 전 식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이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해 줄 것이다.



▲ 본 상담소에서 주관한 132차 정신대 수요시위 (8월 24일)

## 지킴이 하루차집 성황리에

지난 11월 12일 지킴이가 기획한 하루차집이 모든 상담소 식구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수익금은 상담소엔 기부금으로, 위기센터엔 온수기 그리고 열림터엔 탈수기를 기증했다.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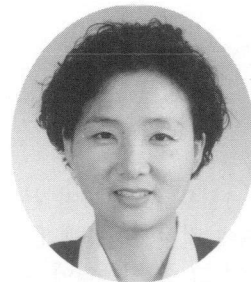


## 당연한 권리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굵직굵직한 강력사건의 피해자는 거의 여자와 어린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접하며 여성들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권리인 일상생활의 영위자체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외출하기도 겁난다라는게 요즘 여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대여성범죄 조사 결과를 보면 90년대의 대여성범죄는 1년에 3십5만 건 3분마다 2명의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흉악범죄에서 안전할 수 있는 지 소위 호신 10계명 등을 실었다. - 고가의 장신구 소지나 신체 과다노출을 피하고 밤늦은

시간 범죄 유발 위험지역을 출입하지 말아라. 범인에게 모독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여성들의 말조심 몸조심으로 이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까.

강간을 한 남자보다는 강간을 당한 여자의 야한 옷차림이나 부주의·무저항을 더 문제시하는 사회, 매춘녀는 잡아가면서 그 고객인 남성 대다수에게는 관대한 사회, 자기 딸 또래의 10대초반의 여자아이를 옆에 앉히고 술을 권하는 사회, 여자들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죽이는 사회 그리고 그 책임과 해결 마저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여성들의 현실이다. 우리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법은 이러한 여성의 권익을 위해



정 경 자 (본 상담소 총무)

어떤 역할을 해왔나 정부는 여성들의 절대절명의 삶의 안전을 위해 무슨 정책을 강구했는가. 정부는 피해당한 여성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었는가. 정부에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 후배와 딸들이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 사랑하는 사회,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여자들이 농락당할수도, 희롱당할수도, 폭력당할수도, 강간당할수도, 죽임을 당할수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하지 않겠는가. 돌아오는 봄에는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한 캠페인이라도 한판 벌려보는 것은 어떨까. ♀

## 사회공동체 의식의 표현

우리는 얼마전 김경록씨의 보복살인을 접하고 모두가 경악했을 줄안다. 많은 경우 실제로 고소를 하지 말라는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굳이 협박이 없더라도 내가 고소를 하면 그가 즉시로 혹은 앙심을 깊이 감춘 채 출소 후에 또 다시 나에게로 올 것만 같은 느낌이 업습한다.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할 것인가를 놓고 다시 한번 망설일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성차별적 사회문화 속에서 내가 당한 성폭력을 낯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도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말이다. 여기서 보복의 두려움이 겹친다면 고소는 정말 어려운 선택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고소의 필요성을 말하려 하는가? 성범죄가 친고죄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자를 색출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내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는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텐데」, 투철한 시민정신이다. 그러나 고소로 인한 추가적 고통과 위험을 생각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지 않을까?

나는 고소를 사회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라고 보고 싶다. 그것은 비민주적이고 남녀차별적인 성문화 속에 나약하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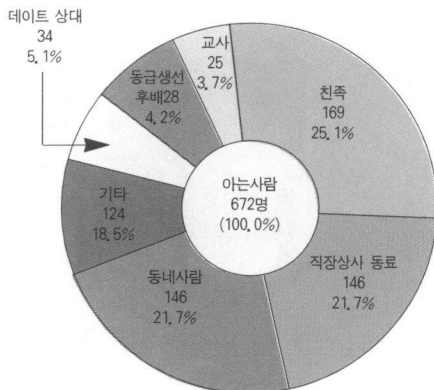
이 호 중 (형사정책연구소 연구원)

못된 사회구조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기초이다. 여기에는 물론 전제가 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의무인 이상 우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끊임없이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차적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표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고소는 바로 올바른 성의 평등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연대적 투쟁장소」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싸움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에게서 나의 어려운 선택을 도와주고 그 것이 헛되지 않음을 입증해 주는 동료들이 있지 않은가? ♀

## 일반상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본 상담소는 2천 17회에 걸쳐 1천 3백 51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1천 74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50.8%, 14-19세의 청소년이 16.9%, 13이하의 어린이가 29.5%를 차지하여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가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강간과 성추행 사례(890건)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5.5%이며, <그림 1>에서 보듯이 아는 사람 중에는 친족과 직장동료·상사, 동네사람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 후 신고나 고소를 한 사례는 전체의 23.6%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르는 사이인 경우는 신고 및 고소율이 32.6%임에 반해 아는 사이는 15.6%로 훨씬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림1> 아는 사람

## 위기상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접수된 위기상담은 총 50건이다. 이것으로 지난 해 12월 개설이후 총 167건이 접수되었다.

지난 3개월간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22건으로 44%, 특수강간이 2건으로 4%, 남성피해와 강간미수가 포함된 강제추행이 26건으로 52%를 차지하

<표 1> 상담현황

1994년 1월 ~ 1994년 9월

유 형		가 해 자				피 해 자					소 계	고 소		
						성인(20~)	청소년(14~17)	어린이(8~13)	유아(0~7)	미 상				
성 폭 력	성 폭 행 602 (53.0%)	일반 강간 569 (53.0%)	아는 사람 425 (39.6%)	친족 10.2%	아버지, 오빠(6.3%)	2	25	34	5	2	68	7		
					친·인척(3.9%)	17	4	18	3		42	1		
				동네사람(6.7%)				28	15	17	10	2	72	23
				데이트상대(2.8%)				25	5				30	5
				직장상사, 동료(8.6%)				81	10			1	92	19
				교사, 직장(1.2%)				1	6	6			13	1
				동급생, 선배(6%)				10	6	1			17	
				기 타(8.5%)				66	16	8		1	91	24
		모르는 사람(108)				54	31	25	3	3	116	42		
		미 상(26)				13	3	5	1	6	28	9		
	윤 간 (3.1%)					14	14	1	1	3	33	10		
	성 추 행 395 (38.8%)	일반 성 추행 321 (29.9%)	아는 사람 247 (23.0%)	친족 5.5%	아버지,오빠(2.3%)		11	10	3	1	25	1		
					친·인척(3.2%)	4	4	13	13		34			
				동네사람(6.9%)				6	2	17	49		74	14
				데이트상대(0.4%)				4					4	
				직장상사, 동료(5.0%)				51	2			1	54	8
				교사, 강사(1.1%)				4	1	7		12		
				동급생, 선배(1.0%)				3	1	2	5		11	
				기 타(3.1%)				18	2	4	8	1	33	2
모르는 사람(6.1%)				32	5	5	12	1	65	17				
미 상(0.8%)				3	3		3		9	2				
강간미수 74(6.9%)					66	1	5	2		74	33			
언어추행 48(4.4%)					38	1	1		8	48	1			
남성피해 29(2.7%)					6	13	4	5	1	29				
계					546(50.8%)	181(10.9%)	193(18.0%)	123(11.5%)	31(2.9%)	1,074	291			
기 타	성문제, 순결				50	11	4	3	1	69				
	인신매매				1					1				
	아내구타				7					7				
	혼인빙자				15					15	1			
	장난전화				8	1	1			10				
	기 타				147	16	3	3	6	175	7			
계					228	28	8	6	7	277	8			
계					774	209	201	129	38	351	277			
재상담	강 간				197	96	111	42		446	23			
	성 추 행				96	15	35	24		170	11			
	남성피해				13		6			19				
	기 타				27	2	2			31	1			
계					333	113	154	66		666	35			
계					1,107	322	355	195	38	2,017	262(23.6%)			

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은 0-7세의 유아가 9건으로 18%, 8-13세까지의 어린이가 8건으로 16%, 14-19세의 청소년이 7건으로 14%, 20세이상의 성인이 26건으로 5%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이 27건으로 54%, 모르는 사람이 21건으로 42%, 미상이 2건으로 4

%이다.

총 50건 중 경찰연계는 모두 6건으로 12%, 병원연계는 13건으로 26%이다. 다른 때보다 낮은 연계율을 보이는데 이것은 신고한 후에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병원이나 경찰에 이미 연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



# 당신이 강간을 당했다면...

## 증거수집

우리나라에서 증거재판주의를 선택한 이상 우리는 고소에 임할 때 증거가 필수적이다. 강간사건 역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간을 당한 즉시 병원에 가서 강간임을 밝히고, 증거물을 채취해야 한다. 가해자의 정액(72시간 이내), 음모, 머리칼락, 지문 등 남아있는 모든 흔적을 채취하고, 산부인과 진단서를 떼도록 한다. 혹 구타나 폭행으로 인한 외상이나 멍이 있다면 역시 진단서를 발부 받도록 하고, 그 상처와 함께 얼굴이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당시 입었던 속옷이나, 찢어진 옷가지, 그외에 상황을 증명할 만한 증거물이 있다면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그리고 그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일지를 남겨 두거나 메모해 놓는다.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증인으로 서 줄 것을 약속 받는다.

## 친고죄와 비친고죄

강간은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비친고죄는 쉽게 말하자면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친족강간, 장애인강간, 강간치상 및 치사일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친고죄로서,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고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피해자가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만 한다.

## 고소여부 결정

고소를 할 때에는 고소의 효과와 고소를 하지않았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고소를 한다고 해서 꼭 가해자처벌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동일 범인에 의한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분노에 대한 심리적 치유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합의

합의는 1심 선고판결 전까지 할 수 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재산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양방이 결정한다.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 후에 합의하면 자동적으로 고소는 취하되며, 한번 취하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 합의는 형량을 감하는데만 영향을 줄 뿐 고소가 취하되지는 않는다.

## 고소절차

고소를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고소장을 작성한다. 본인이 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할 수 있다.
- 고소장을 사고 발생지역, 또는 가해자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낸다.
- 경찰이 수사한다.
- 경찰은 피의자(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한다.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증을 인멸할 경우가 있는 경우, 도주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요즈음은 불구속 수사를 많이 하는 추세이며, 가해자를 불구속했다고 해서 수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의 진술과 대질신문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시에는 절대 내용을 꾸며서는 안된다. 사실대로 말해야 하며, 생각이 나지 않을 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역고소될 수 있다.
- 경찰의 수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기소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재판에 부칠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 재판이 진행되면 필요시 증인으로 출두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비공개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 검찰 수사과정이나 재판진행시 검사나 판사앞으로 진정서를 쓸 수 있다.
- 1심에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서 항소할 수 있으며, 2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한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건발생 3년 이내에 해야하며, 형사재판과 동시에 소송을 내어 물질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승소해야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재판이 끝난 후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전문 상담기관

혼자 하기에 어려우면 전문 상담기관이나 여성단체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 심리적 치유과정에서의 「글쓰기」의 활용

많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신체적인 손상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손상, 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다. 특히 어릴 때의 성적 학대는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아존중감, 성관념, 대인관계, 부모역할 수행 등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대부분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경험은 무시되거나 축소되고, 은폐되어 이들의 감정은 해소되지 못하고 억압된 채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글쓰기」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 일이 나빴다는 것, 그리고 그 잘못과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되는 한 방법이다. 「글쓰기」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나름대로 정의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쓰기」를 통해 피해자는 파묻어 버린 기억과 공포와 격분을 다시 끄집어내어 표출하며 피해 당시의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글쓰기 작업은 결국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글을 쓸 때에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써본다.

## 1. 「나」에 대해 정리하기

- 성폭력으로 인해 지금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그로 인해 내 생활은 어떻게 제한받고 고통스러운가?
- 그 경험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며 살아왔는가?
- 나에게 있는 어떤 좋은 면이 그 경험을 극복하도록 도왔는가?
- 그 경험들로 인해 내가 강해진 면은 무엇인가?
-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 내가 잃은 것, 상처받은 것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어떤 것인가?
- 치유과정을 시작하고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점에 자부심을 갖는가, 이 과정을 통해 극복한 장애는 무엇인가, 성취한 것은 어느 정도인가?
- 앞으로 극복하고 자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 어떤 방법으로 작업해 나가려고 하는가, 이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2. 「가해자」나 가족에게 글쓰기

어느 정도 자신의 느낌과 현실에 대한 정리가 되면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분노, 그에 대한 억눌린 감정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이 글은 반드시 가해자에게 보낼 것은 아니라는 마음으로, 되돌아 올 반응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말하고픈 대로, 화가 나는 대로, 감정이 상한대로 자유롭게 쓴다. 가해자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쓴다.

그리고 보호해주지 않은 가족이나 그동안 나를 비난해왔던 주변사람을 상대로 써보는 것도 좋다. 근친성폭력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어린시절, 보호해 주지 못한 어머니의 환경 등 자신의 가족사를 재구성해 본다. 가족 내에서 누가 나의 지지자이며 누가 나에게 적대적인가, 무엇이 나를 화나게하고 겁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등을 정리해 본다.

## 3. 글쓰기 방법과 마무리하기

글을 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와 때를 정하여 주제에 따라 30분 정도 써내려 간다. 일단 쓰기 시작하면 멈추지 말고 계속 써내려 가며 글이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멈추게 될 때는 「왜 안써질까, 답답하다」등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쓰는 것도 좋다. 쓰는 도중에 감정이 격앙되어 울거나 화가 나면 그것들

을 그대로 쓴다. 이때에 형식이나 문법, 철자들에 개의치 말고, 완전한 장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다 쓴 후에는 얼마동안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나서 주의깊게 들어주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쓴 글을 읽어주는 것도 유용하다. 그러나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글을 읽어줄 때에 피해자의 경험이 별 것 아니라고 여기거나 비밀을 유지하지 않아 또 다른 상처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의 글을 들어주는 사람은 피해자의 경험이나 글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는 말 것을 미리 일러두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은 피해자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ㄴ

##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 내 몸은 내가 지켜요

### 홍보용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1. 비디오를 추천하는 글, 비디오 보는 방법, 비디오에 나오는 노래등이 실려 있습니다.
2. 원하시는 분에게는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 가격 : 18,000원 ● 상영시간 30분
- 대상 :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

1.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접 구입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료 2,000원을 포함하여 20,000원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입금이 확인되는대로 등기 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 009-01-1176-632 농협 : 037-01-194301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구입문의 : ☎ 576-7127~8





# 열림터를 열며

상담소가 문을 열고 4년 동안 만난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처지는 참으로 절박했다. 상황의 절박함과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심리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해 오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한 구석에 남아 있었다.

성폭력 피해여성은 정신적·육체적 보호와 안정, 치유뿐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과 다른 피해여성과의 경험 나누기를 통한 주체적인 삶의 회복을 필요로 한다. 특히 근친성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여성은 가해자와 함께 사는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성폭력으로 부터 벗어날 수 없다. 피난처와 쉴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전화 혹은 면접을 통한 상담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는 것이다.

6천 5백여 회에 걸친 상담을 통해 만난 4천여 건의 피해자들 중 8%는 보호시설을 필요로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내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새로운 삶과 자립을 위해 작은 울타리인 「열림터」를 마련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열림터의 기능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열림터의 기능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피난처로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상담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조항을 지지해 주는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 의미의 지원체제이다.

### 1) 상담

#### ① 개별 상담

열림터 운영위원과 주 1회 이상의 면접상담을 통해 피해여성의 심리적 어려움 극복을 돕는다.

#### ② 집단 상담

피해 여성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성폭력 경험을 드러내고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 경험을 나눔으로 써 고립감·이질감·자기 비하감 등 심리적 혼돈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집단상담을 통해 서로가 위로하고 지지해 주면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자신을 이해하고 자존감·정체감·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6단계 상담 과정을 통해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서 자기 노출과 자기 이해를 돕고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활용된다. 피해자가 갖는 느낌의 공유, 구성원간의 이해와 지지는 정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해 후유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 ③ 전문가 상담

주 1회 정도 심리·의료·법률 전문과의 상담이 있다.

#### ④ 비디오 관람, 독서, 토론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같은 여성으로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자각과 자매애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한다.

#### ⑤ 의료적·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피해 여성에게 이 분야의 자문위원과 연계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지원한다.

### 2) 운영

#### ① 대상

열림터를 원하는 성폭력 피해 여성

#### ② 이용 방법

일차적으로 전화 상담·면접 상담을 한 후 열림터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열림터에 입주가 결정된다. 열림터 이용 기간은 30일을 원칙로 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곳을 이용할 때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내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국민학생일 경우는 보호자 동반 원칙)

또한 피해 여성이 열림터에 오면 열림터 내담자 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생활 수칙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한다. 이렇게

변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다.

### ③ 운영위원회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열림터 운영위원회에는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이끌어 가며 내담자의 열림터 입주 여부, 내담자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외부자가 담당한다.

## 2. 열림터의 의의

국내에서는 최초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열림터는 마땅한 피난처가 없어서 계속되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피해 여성들에게 자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열림

터의 치유프로그램과 공동 생활은 피해여성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보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갈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줄 것이다.

## 열림터가 필요했습니다

### ▲ 앞으로 살아갈 길을 준비할 곳이 있을까?

내담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열 살때부터 아버지에게 추행 및 강간을 당해왔다. 이 아버지는 내담자가 열 살 때 안방에서 비디오를 보다가 팔, 다리를 주무르라고 내담자를 불러서는 옆에 누우고 손가락을 내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 추행을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일년에 두 세번 정도 내담자를 강간, 추행했으며 둘째 딸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로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에만 그러한 짓을 하고는 내담자에게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다. 아버지는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어, 평소에도 칼을 몇개씩 차고 다닐 정도였다.

내담자는 평소에 어머니가 집에 없으면 불안해하고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만 나도 기겁을 했는데 어머니는 워낙 남편이 난폭하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줄만 알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는 술을 먹고 망치와 칼을 옆에 두고 딸들을 협박하고 추행하려 했으며, 딸들이 저항을 하자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내담자는 망치와 책가방을 들고 작은 외할머니집으로 도망쳤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된 어머니는 「남편이 그 지경이어도 애들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같이 살 이유가 없다」며 이혼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남편이 순순히 이혼을 해줄 리가 없고, 그렇다고 이혼을 기다리며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었다. 금방 남편이 알아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작은 할머니 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었다. 당분간이라도 내담자와 형제들, 어머니가 같이 머물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을 곳이 절실히 필요했다.

### ▲ 안전하게 지낼 공간이 없을까요?

내담자는 결혼 후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주인집 남자가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을 미끼로 함부로 내담자의 방에 드나들며 전화를 쓰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밤 잠겨 있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이런 저런 트집을 잡고 구타와 협박을 해가며 내담자를 강간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내담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일단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음을 확

인하였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나 형사는 내담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내담자를 추궁해서 내담자는 모욕감을 느끼고 더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는 주거를 침입한데다가 폭행과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담자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였다.

내담자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고소를 취하해버리고, 전세금을 받아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단순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이라서 고소를 취하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내담자는 언제부턴가 가해자측 사람들 20여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사진을 찍는다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결국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열리는 날까지도 언니 집에 얹혀사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언니와 형부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돕는 지원자가 되어주지 못했다. 내담자는 더 이상 가해자에게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공간이 없는지 여러번 문곤 했다. 이 내담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법적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처치가 필요했다. 유

### 나눔터 그림



# 참을 수 없는 성충동은 없다

박 미 라 (자유기고가)

「너, 정말 총각이니?」

「...」

「어떻게 총각일 수 있니? 혹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

대학교 시절, 나를 비롯해 짝꿍은 몇 명의 여학생들은 호기심이 가득 찬 눈망울을 하고는 한 남학생 주위에 비잉 둘러 앉았다. 그 남학생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했다. 그럴수록 우리의 호기심과 장난기는 자꾸만 꿈틀거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다수의 여학생이 한 명의 남학생에게 저지른 언어 성폭력이었다. 각설하고.

그 남학생은 주위의 친구들에 의하면 남자중의 병신 또는 희귀종 이었다. 대학교 3학년이 다 되어가도록 총각의 때(?)를 벗지 못했다고 소문난 그 남자애가 여자인 우리들에게도 그저 신기하고 이상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너도 여자들처럼 순결을 지키겠다고 생각한 거니?」

「아니야, 그건... 그냥 쑥스럽고 무서워서. 그런 곳에 간다는 게...」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총각일 수 있는데? 넌 아직까지 성적인 욕구를 못 느꼈었나보구나? 남자애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다던데...」

그러자 그가 억울하다는 듯이 대꾸했다.

「내가 병신인 줄 아니냐?」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참을 수 있는데?」

「자위하면 된단 말이야!」

궁지에 몰린 끝에 튀어나온 그 남학생의 한 마디에 몇 명의 여자는 어리둥절하고, 나머지는 와아! 하며 웃음

을 터뜨렸다. 우리는 그 때 알았다. 남자들의 성충동은 어쩔 수 없는 충동이 아니고 다스릴 수 있는 욕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정 참기 힘들다면 자위하는 걸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다.

물론 그 남학생이 인기작전을 벌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다. 돈으로 여자를 사는 것이나 애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것을 쑥스럽고 무섭게 생각하는 그 건강한 상식의 남학생이 진짜 총각이라고 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여학생은 없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잘못된 성 인식에 젖어 있었다.

사실 남자들의 본능이라는 것은 아주 자유자재하게 통제된다. 대낮 강도가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기위해서 성폭행을 한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파는 남자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아닌 필요에 의해 성관계를 할 수 있듯이 그 반대로 참을 수도 있다. 정반대로 참을 수가 없다면 그 남학생의 말대로 자위를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 인간의 의사와 욕구가 무시된 상태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성충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화가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였다는 말 만큼이나 터무니 없는 변명이다.

이제 자신의 남자 친구가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이렇게 자신있게 충고하라.

나도 참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꺼야. ♪

## 박 수

◆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침묵의 전화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호느낌이 있었다. 다시 걸려오길 기다렸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녀(?)에게 용기를.... 언젠가는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겠지. 그것이 나로하여금 지킴이를 그만 두지 못하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 지킴이 교육용 비디오 「피고인」을 보았다

그 영화를 처음 보았던 2년 전에는, 피해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는 생각과 그럴만한 원인을 제공했으니 화간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거의 비슷하게 양립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보았을때는 '이건 강간이다'라는 확실한 느낌이 왔다. 그 동안 내 사고체계의 변화가 온것이라. 막강한 상담소의 위력이라면 좋은 표현일까 여하튼 나의 바람직한 신념의 확립에 기여한 상담소에 감사한다.

◆ 활동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익숙하지 않는데, 「겨울」 「연말」이라는 것을 잇을 정도로 상담소의 분위기는 묘하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 주위 환경이 「쉬쉬」하며 알려주지 않았던 얘기들이 여기서는 참 자유스럽고 개방적이고 솔직하다. 배울점이 많을 것 같다. ♪



# 한 남자 대학생의 성에 대한 보고서

이 준 서 (단국대 건축공학과 3년)

여성학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가치관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삶하고 많이 달랐음을 깨달았다. 특히 남녀가 한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 힘든 성에 대해선 더욱 더 차이가 많았다. 그래서 여성의 성인식을 좀더 바르게 알아보기 위해 보고서 주제를 여성의 성인식으로 잡고 여대생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취재를 했다. 조사결과 역시 나의 생각과 다른 여성의 성인식을 접해야만 했다.

설문지 질문 내용 중에서 몇가지를 보면 혹시 포르노나 성적인 행위를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0% 정도가 영화를 통해서 보았다고 했으며 포르노는 단 1명만이 보았다고 답했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물음에는 92% 이상이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8%만이 사랑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성에 대한 지식이나 피임 방법은 어느 정도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선 중고등학교때 받은 성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이성친구로 존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8%가 존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볼때 여성은 성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부족하고 보수적인 인식이 좀더 강했고 훨씬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성관계에 대해서도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특히 여성은 성적 충동이 우발적이기 보다는 막연한 동경과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만 이해되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성을 이성친구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설문지를 통해 나의 이중성과 함께 여성의 이중성을 추론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군대에 가기 전까지 나는 모범생이어서 착한놈이라는 병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여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좋아한다. 하지만 대화 상대, 친한 친구로서는 불가능하다. 지적인 수준과는 별개의 문제다. 여성은 여성일 뿐 남성이 될 수 없다. 속칭, 속이 정말 뻔뻔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매일 성충동을 느낀다. 예전에는 나에게도 순결을 지킬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남성의 문화에 결국 지고 말았다. 스물다섯살에 나이 동안 더러운 한국의 성문화에 희생되고 주역이 된적도 있다. 지금은 환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지금 이순간도 성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결코 동물적인 배설욕만은 아니다. 사랑하는 여성에게 나의 충동을 발산하고 싶다. 졸업하고 취직하기까지는 너무 길다.

여성과 남성은 성적으로 동등하다. 여성과 남성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공존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념을 토대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인식하게 된다. 중국의 티베트 지방에 살고 있는 모계사회의 한 부족이 연상된다. 남성은 절제와 책임이 따르고 여성의 성을 도외시킨 채 완전한 성을 결코 이룰 수 없다. ☹

## 함께 보고 생각해 봅시다

### 성폭력 관련 비디오 모음

#### ◆ 피고인

성폭력 영화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화제작.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채 춤을 추다가 강간 당한 여성이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줄거리다. 강간을 방관하고 교사한 행위도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한 점도 획기적이다. 신분·직업을 떠나서 같은 여성이라는 인식의 주인공과 변호사와의 우정도 주목할거리.

####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의 혀를 절단해서 화제가 된 변월수씨 사건을 그린 실화. 과거에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술을 마신 주인공의 정조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로 규정한 현 사회의 통념이 가슴 아프게 깔려 있다. 재판정에 선 주인공의 최후 진술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

#### ◆ 안나이야기

서커스단에서 달리는 말 위에서 총을 쏘는 직업을 가진 여인 「안나」가 강간 당한 다음날 가해자들을 찾아가 차례로 총으로 쏘 복수한 후 경찰에 쫓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죽어간다. 성폭력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된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보고나면 누구나 '성폭력이 일어나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하는 영화이다.

#### ◆ 사랑과 추억

이 영화를 보면 성폭력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성폭력 당한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성격과 인생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나타난다. ☹

# 내가 좀 주물러 줬지

한 립 화 (소설가)

선생님들 요즘 라디오 들어? 으음, 저기 있잖아 그 소설 쓰고 여성운동한다는 그 여자, 왜 아침에 여성프로 진행하잖아. 진행자가 갑자기 바꿨대요. 그 여자가 며칠 전에 방송국 엮어버리고 나와 버리는 통에 난리가 났었대. 우리 이웃에 사는 그 계구진 남자 있지. 그이가 그 방송국 엔지니어잖아. 그이가 그러대 참 웃기구 나가더라.

이유? 뭐 저의 성깔 못이겨서 박차고 나왔다고 하던가 뭐 그러대.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대요. 그여자가 뭐라더라 결혼은 인생에서의 선택사항이라 해대면서 애 낳고 그냥 산 다고 떠버리곤 하는 거 그거 우리 다 아는 거고. 혼자 잘났다고 뽐내기 노릇해대더니 그 여자 되게 못된 년이래요 글썄. 지금 그 죽일년 애아빠, 그 남잔 다른 여자가 있었대잖아. 근대 그 한심한 년이 뺏았지. 왜 지난 신학기에 전근 간 강선생 있지? 강선생 시늬가 바로 그 남자 애인이래나봐. 강선생 시늬가 기자 아니니. 왜 노처녀로 늙어가나 했더니 마로 그 못된 년 때문이었다지 뭐야. 그래. 내 차근차근 말할께. 이야기할 시간 좀 남았나 모르겠네? 넹넹해? 오케이.

이렇게 된거라잖아. 그러니까 강선생 시늬가 그 애아빠와 십년 간 연애를 했었대.

음?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이도시에 나타난 게 칠년도 채 못되었다고? 아이 그게 뭐 대수야야. 어쨌거나 둘은 같은 직장에 다녀. 그래서 잘 지내는데 그 말도 안되는 년이 끼어들더니 냉큼 애를 낳아버린거야.

왜? 내 말이 뭐 잘못됐어? 강선생 시늬 애인이 한둘이냐고? 그 신문사 전 편집국장도 애인이었던 말이지. 또 누구? 으음, 그 사람. 조금 데이트는 했지만 애인관계까지는 안갔겠지. 왜냐구?

그 사람은 버얼씨 결혼했었어. 어허 그 말도 맞아. 강선생 시늬는 꼭 유부남 하고만 연애한다더라. 근대 정말이라구요.

그 못돼먹은 년 애아빠가 강선생 시늬 애인이란 건 정말 확실하대구. 실은 그 애아빠가 지금 그 애아빠도 아니래. 뭐 남자 관계가 되게 복잡하대. 사람들이 다 그러다려 술 잘 마시고 담배 잘 피구 밤 늦도록 남자들하고 노상 다니고...

그 갈보같은 년이 뭐 자폐증 환자라구? 아니 선생님은 누가 그래요? 그래 나도 본 적은 없어.

우리가 안보이는 대로만 나돌아다니는 모양이지 그럼. 여기가 맞아, 손바닥 보다는 비좁지. 그래도 우리 눈에 띄지 않게 다닐 데는 많아요. 제발 더 듣고 싶으면 중간에 말 막지들 마셔.

그 애가 그 남자 애가 아니라는 건 애 아빠 입에서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생 시늬가 그 남자에게 물었대잖아 그애는 당신 애냐구,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 그 애 아마 그 남자가 호적에 안 올려줘서 그 오시랄 년 독호 만들어서 올렸대드라.

누가? 선생님 조카가 동사무소에서 호적계 일 봐? 그 남자하고 같이 가서 그 남자 이름을 애 아버지 난에 당당하게 써 넣어서 서류를 들었는데 호적계에서 출생신고를 자꾸 반려했대? 결혼 안한 여자가 자기 호적에다 애를 출생신고하려면 아버지 이름을 밝히면 안된대? 그건 몰랐네.

아 그것봐. 법이 그런대도 애 아빠 이름을 썼다면 그거 되지게 염치없는 짓 거릴 한거지 제판엔 그럴듯하게 보이려 구 발악을 한거 아니겠어요? 건 그렇구요. 강선생 시늬가 결혼을 할 맘이 있는데 그 막돼먹은 년이 물려서질 않아서 되게 슬프게 지내나 봐. 그런 사연이 아

마 방송국에도 퍼진 모양이야. 그 미친 년이 방송하는 거 방송국 사람들 되게 싫어했대요. 아나운서 들도 몇 명씩 썰었는데 굳이 이름 좀 난 여자라구 데려다 써 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도덕한 여자가 교양프를 진행하니 더구나 될 말이야 어디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분개했대. 막 벌렸던 모양이더라구.

마른벼락 맞아도 쌀 그년이 워낙 독종이여서 어디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분개했대. 막 벌렸던 모양이더라구.

바로 우리 이웃 그 엔지니어가, 길가다 꼬꾸라져도 시원찮을 그 년이 방송에 들어가기만 하면 스튜디오 밖에서 키스하는 시늬, 찌르는 시늬 막 해대면서 비아냥 거렸나봐. 보일 때마다 아무데서나 사랑한다고 막 껴안고 그렇게 놀려먹었대. 정말 정숙한 여자였다면 그런거 한두 번만 당해도 못참는다구. 이건 뭐 도리어 그런 짓 해달라고 하는듯이 즐기더라. 그 날도 방송 엉망되게 하구 또 키스하는 시늬하고, 『내가 좀 주물러 줬지』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난데 없이 그 날은 확 뒤엎어버리고 나가더라. 아니 그럴 수 있어? 방송은 만인과의 약속인데 자기 기분따라 건어 치울 수 있는 거 난 말예요.

뭐, 뭐예요? 그거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당했으니 그럴만 하다구? 선생님들 왜 이래? 누구 편이냐구요. 그럼 편 안파지게 됐어요? 유

## 한림화씨는

제주 출신 작가로 1973년 가톨릭 신보에 중편「선율」을 발표하여 작품활동 시작하였다. 작품으로는 단편「신의 아이」, 중편「꽃한송이 숨겨놓고」, 장편「한라산의 노을」, 「제주 바다 잠수의 세계」 등이 있다.

# 그러나 매춘은 없다

류 숙 렬 (문화일보 기자)

7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매춘시장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흔히 「창녀」불리우는 전통형 매춘여성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반면 향락산업의 변장과 아울러 산업형 자발성 매춘은 급증하는 추세다.

현대사회연구소가 조사한 호스텔스 실태에 따르면 일 자체에 매력을 느껴서 선택한 경우가 10%를 넘으며 고졸이 54.1%, 고퇴가 16.4%, 대퇴가 12.7%, 대졸이상이 3.7%이며 이들의 수입도 월평균 1백5십만원에서 2백만원의 고소득이다. 이들에게 「가난한 가족의 희생양」이라는 도식은 더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파는 여성들이 늘어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젊은 여성학자 하은경씨(26)는 지난 3년간 강남, 이태원 등지의 호스텔스, 디스코걸 등을 심층 인터뷰해 「그러나 매춘은 없다」라는 책으로 펴냈다. 이씨의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는 이들 산업형 매춘여성들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았다는 점이다. 이씨에 따르면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일명 「노는 아이」였다. 이씨의 연구결과 드러난 산업형 자발성 매춘여성 실태를 점검해 본다.

비행청소년을 일컫는 「노는아이」란 말은 공부 안하고 학교 안밖에서 사고나 치고 다니는 학생들을 싸잡아 부르는 호칭이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어디어디 술집을 다닌다는 소문이 돌리기까지 하며 어느 수위에 도달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라는 장을 이탈한다. 일단 자타가 인정하는 노는 아이가 되면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눈에 띈다」는 것이다.

노는 아이들에게 물건 훔치기, 싸우기,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학교수업을 빼먹거나 술, 담배, 화장을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기존의 가치에서는 「해서는 안되는」행위를 스스럼 없이 한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에는 도덕적인 것에 대한 거부, 성금기에 대한 조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의 행위가 옳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는 아이들에게 성경험은 「진짜 노는」것의 상징이기도 하다

일단 체념하게 되면 이들은 더 반항적이 된다. 한번 찍힌이 상 무서울게 없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는 위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대우받는 학교 현장, 선생이라는 위선적인 자리등 이들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꿰뚫어 본다. 비행 을 저지르는 아이에 대한 가족의 대처방식은 폭력이다. 심지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정신이 말짱한 아이를 수용소나 정신병원까지 보낸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경로로 매춘시장으로 들어가는가? 대부분 학교라는 장에서 이탈을 겪게되는 이들은 곧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게 되어 가출을 하게 된다. 자신의 가정이 유복했건 가난했건 간에 집에서 벗어난 10대 소녀들은 한푼도 없는 가난뱅이에 불과하다. 가출뒤 먹고 살기가 절박한 이들에게 몸은 가장 만만한 자원이다. 이미 「처녀딱지」를 뗀 처지에 삶의 절박함 앞에서 순결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돈도 없이 가출한 10대 여자들이 기거하는 곳은 환경이 나쁜 싸구려 여관이다. 서울역 근처의 양동, 종로 3가의 동광, 청량리역 주변의 여관촌 등, 이곳에서는 가출을 하고 돈이 없는 어린 여자들을 상대로 매춘이 이루어지며 심지어 단돈 몇십 만원에 인신매매도 횡행한다.

매춘을 단지 「남자와 노는 것」정도로 생각했던 그들은 그것이 착오였다는 것을 한 순간에 깨닫는다. 매춘이 돈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는 남자들의 별의별 제의를 다 받아들여야하는 과정임을 습득한다.

매춘여성은 반복되는 낙태뿐 아니라 직업상 자주 하게 되는 술과 담배, 고달픔을 잊기 위해 자주 복용하는 신경안정제 등으로 건강이 안좋다.

매춘여성들 대부분은 그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가정, 학교에서 무작정 뛰쳐나와 먹고 살기 위해 매춘에 뛰어들었지만 이들에게 매춘은 단지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다. 남들처럼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심정이다. 유

## 편집자 주

이번 「성문화 읽기」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매춘여성의 입장에서 매춘의 문제를 다룬 「매춘은 없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해결하려는 각계의 활동 활발

###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 모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각계에서 성희롱을 추방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성계, 학계,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각 사회 단체들이 모여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이 사건이 올바르게 판결 내려지도록 그리고 매듭지워진 후에도 성희롱 문제를 추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연대 활동을 할 것이다. 이 날 모임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공정한 판결과 고용주와 국가책임 의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10월 5일 서울YMCA)



▲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 모임」에서

### 서울대에서 「학내 성희롱 공청회」

서울대에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대 여성 문제 동아리 협의회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영애, 강병원)가 주관하여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내용에 따르면 대학이 성희롱 발생의 예외 지역이 아님을 말해준다. (10월 5일 서울대)

### 교수들이 준비한 성희롱 공청회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주최로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정옥(효성여대 사회학) 교수의 사회로 조옥라(서강대 인류학), 심영희(한양대 사회학),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 정진경(충북대 심리학), 이은영(외대 법학) 교수가 한 신체접촉을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보아 왔는지, 성희롱이 왜 권력의 문제인지, 왜 고용상의 성차별인지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공청회는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주체가 되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9월 10일 63빌딩)

## 95년 「세계여성대회」 준비 활발

내년 북경에서 열리는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민간여성 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대회는 정부대표회의와 NGO(비정부단체)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NGO포럼은 정부차원 회의와는 달리 여성들의 삶과 생각, 행동, 미래에 대한 전망등 생생하고 폭 넓은 여성문제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행사로는 워크숍, 토의, 전시, 공연, 문화행사 등 활발한 연대가 있을 예정이다. 유



▲ 내년 「세계여성대회」 NGO포럼 준비를 위한 동아시아 여성포럼

# 윤장순 이사님을 찾아서



윤 장 순 (본 상담소 이사)

나눔터 기자들이 찾아간 곳은 항상 소녀 같은 미소와 단아한 모습으로 상담소 식구들에게 온화한 마음을 전해 주시는 윤장순 이사의 자택이었다. 상담소 일에 관계하는 대학 후배의 권유로 개소부터 이사직을 맡고 있는 그는 상담소 큰행사 때마다 사회를 맡는 등 물심양면으로 상담소를 돕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보람이었어요. 반면에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상담소 이름이 좀 듣기에 거북해서 처음에 저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가 어려웠고 남들도 같은 의견더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성폭력상담소」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상담소의 기억을 더듬는 그의 얼굴에 특유의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다.

남편인 국회의원 이종찬씨와는 국민학교 동기동창으로 81년 남편이 국회의원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놀라서 며칠을 앓아눅기도 했단다. 처음엔 어떻게 그런 걸 한 싶었으나 남편이 정치를 시작하고 그도 집안에만 있다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준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손주 둘이 거실로 와서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라고 하기엔 너무 젊게 보이시는데요... 하는 기

자의 말에 「친손녀와 외손자인데 며느리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딸은 신문기자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할머니만큼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서 맡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엔 마음놓고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칠 않아요.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죠.」하며 탁아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힘으로 부딪쳐 보기엔 너무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진정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소가 하는 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이해를 하고 충고도 할 수 있는 경우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나이 또래, 그러니까 4, 50대 유혹 고급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특별한 소망은 없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 주었으면 하는 것과 남편 일이 잘 되는 것, 늘 가지고 있는 바람들이라는 그의 새해 소망을 끝으로 인터뷰를 했다가 보다는 연배를 잇은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따뜻함이 남았다. 새해에도 그가 할 상담소 활동을 기대하면서 신교동 길을 걸어 나왔다. 유

## 알림판

### 새로운 후원회원

김미란, 김용녀, 도경수

### 기부금 보내 주신분

김옥라, 박현진, 안승하

### 열린터에 기부금 보내주신분

구은주, 국민은행, 김경희, 김병준, 김성호, 김세중, 김시길, 김진태, 김효석, 남경애, 박경석, 박금자산부인과여성종합검진센터, 서정훈, 양진영, 어우선, 여성문화예술기획, 연대의대여동문회, 영등포구여의사회, 원곡성당, 우국영, 유태진, 이민숙, 이영해, 이우정, 이현숙, 인하대간호학과, 임성근, 임춘자, 전영

자, 정계숙, 정만제, 정용제, 정호희, 제일병원산부인과, 조영황, 지삼봉, 최은순, 구정진, 한국여성의전화, 한만희, 홍경진

### 나눔터 새로운 회원

김성재, 김해영, 박세경, 손화정, 양희숙, 이희원

### 책 보내 주신분

도서출판 등지, 도서출판 새길, 염혜승, 정경자 유

만든이 : 김영아, 류한경, 연민이, 이규화, 장윤경

#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 ■ 상담전화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 유한국 성폭력 상담소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법률 · 의료 · 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적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 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일반상담 : 월 ~ 금, 오전 10 - 오후 5시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위기상담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24시간

-면접상담 : 화, 목, 오후 2시 - 5시

-서신상담

##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 담 원** :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 / 상담원 교육)을 수료하면 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나 눔 이** :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자료정리, 번역,...
- **위기센터지킴이** : 위기센터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원, 병원, 경찰에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물 품 기 증** :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 **후 원 회 원** : 후원회원이 되면 소식지 「나눔터」와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상담소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을 위해 쓰입니다.

## ■ 온라인 구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성폭력 상담소

농 협: 037-01-194301

성폭력 상담소

## 소식지 「나눔터」와 함께 하세요!!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원을 위의 온라인 번호로 납입하신후 본 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 [나눔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